

한·미간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비교 분석[†]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for
Service Trade between Korea and U.S

김 영 춘*
(Young-chun Kim)

목 차

- I 서론
- II 한·미간의 서비스무역 현황
- III 한·미간의 서비스무역 구조
- IV 한·미간의 서비스무역 구조 비교 분석
- V. 결론 및 시사점

I. 서론

서비스무역은 세계경제가 총체적으로 소프트화 내지 서비스화의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상품무역에 비하여 소외되어 온 서비스부문이 탈공업화 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로의 구조변화를 겪으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GATS)과 FTA 체결의 확산 등으로 세계 교역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의 비중 증가뿐만 아니라 증가의 속도도 빠르게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경제의 서비스화의 진전으로 세계 각국의 생산구조

[†] 본 연구는 (재)제주대학교발전기금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서비스무역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및 고용의 창출효과가 제조업에 비하여 높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서비스산업의 기여도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는 국민의 소득수준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 등과 밀접하게 연결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서비스경제로의 구조 전환을 이행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보다 의존하는 생산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서비스부문의 생산요소 이동과 투자 확대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은 생산, 고용, 소비는 물론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서비스산업의 특성과 제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 경쟁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며 서비스수지 적자가 만성적으로 지속하고 있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수지 적자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의 해소를 위한 국제수지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업종별 국제시장점유율(International Market Share : IMS), 현시비교우위지수(RCA : Reveal Comparative Advantage) 그리고 무역특화지수(TSI : Trade Specification Index))를 산출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간의 서비스무역 업종별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서비스무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정부의 서비스무역 정책 결정에 참고 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자료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WTO의 자료로 분석하였고, 기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 KOSIS, the World Bank, IMF의 Balance of Payments Statistics, OECD의 Statistics on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Ⅱ. 한·미간의 서비스무역 현황

2.1. 세계 서비스무역 추이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 고용 그리고 생산구조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비교역재로 인식되어 왔던 서비스 재화의 국제간 교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세계무역의 규모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지역 내 무역의 결속력 증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WTO 회원국의 총 상품 무역액은 32조8930억 달러이며, 이 중에서 상품수출의 비중은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수출액은 년 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무역의 세계 전체 규모는 8조 1250억 달러(세계무역의 24.7%)이며 이중 서비스 수출액은 4조 17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2011년).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11%가 증가한 것으로 전체의 세계 서비스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의 서비스 수출은 2005년-2011년간의 평균 9%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 수입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같은 세계 서비스무역의 확대는 지식경제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데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척된 데 기인한다.

세계 주요 서비스 무역국의 2011년도 수출 및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각각 5,810억 달러, 3,950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각각 13.9%, 10.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서비스 수출액이 1820억 달러로 전 세계 서비스 수출시장의 점유율이 4.4%로써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 수입액에서도 2010년에 비해 2,370억 달러로 23%가 증가한 것으로 서비스시장 개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1> 참조). 전 세계의 서비스무역 점유율은 세계 서비스무역 10위권 내의 국가들에 의하여 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EU(27국)가 7,840억 달러 전 세계의 24.7%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APEC국가들은 세계 서비스무역 점유율이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APEC이 앞으로 세계 서비스시장을 주도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2010년에 미국은 중국, 인도 그리고 브라질의 국가에 서비스 수출 비중이 각각 32%, 5%,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에 중국, 인도, 브라질의 대미 서비스 수출 비중은 각각 22%, 11%, 5%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 서비스 수출의 주도적인 업종은 사업서비스, 여행, 그리고 운송 등의 순이다.

세계 서비스무역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여기에 경제 대국들이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히 BRICs국가들의 전 세계 서비스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세계 서비스무역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2011년)

단위 : 10억 달러, %

순위	수출국	금액	점유율	증가율	수입국	금액	점유율	증가율
1	미국	581	13.9	9	미국	395	10.0	7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세계 주요국의 GDP대비 서비스무역 규모의 비중을 살펴보면 우선 세계 전체의 GDP 대비 서비스무역 비중이 2003년 이후 년 평균 11.37%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덴마크 34.1%, 네덜란드 23.4%, 오스트리아 24.1%, 영국 17.5%, 독일 14.4%, 한국 15.6% 등의 국가들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특이한 현상은 선진국 대부분 국가들이 GDP대비 서비스무역 규모가 점차적으로 한결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서비스시장도 경쟁 환경이 가속화되고 있고,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서비스시장도 경쟁 환경이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 국가마다 서비스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서비스무역 관련 지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표 2>참조)

<표 2> 주요국의 GDP대비 서비스무역 비중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세계전체	9.98	10.64	10.94	11.35	12.00	12.39	11.82	11.86	11.33	11.37
미국	4.81	5.25	5.37	5.66	6.12	6.57	6.35	6.55	6.84	5.95
오스트리아	22.13	22.62	24.04	24.36	24.91	25.74	23.99	24.36	24.85	24.11
중국	6.22	7.13	7.02	7.11	7.22	6.77	5.78	5.99	5.75	6.55
덴마크	28.18	28.48	31.19	35.55	37.24	39.36	34.09	35.97	36.88	34.10
프랑스	10.55	10.43	10.73	10.74	10.82	10.88	13.63	14.23	15.00	11.89
독일	12.28	12.66	13.58	14.24	14.59	15.20	15.18	15.69	15.72	14.35
이탈리아	9.65	9.67	10.04	10.65	11.00	10.62	9.53	10.24	10.24	10.18
일본	4.40	5.01	5.35	5.80	6.42	6.56	5.50	5.45	5.34	5.54
네덜란드	23.62	23.48	24.02	23.65	23.16	22.77	22.53	23.37	24.09	23.41
영국	15.37	15.79	16.25	16.86	17.46	18.66	18.67	18.88	19.52	17.50
한국	11.76	13.14	12.95	13.33	15.04	20.07	18.43	18.04	17.39	15.57

자료 : The World Bank

2.2. 한국의 서비스무역 현황

한국은 1990년 이전까지 해외여행을 통제하고 각종 외환규제로 서비스수지가 흑자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 세계화 등의 정책으로 해외여행 자유화 등이 진행되면서 적자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생산측면에서 매년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전체 취업자의 76.40%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2010년까지의 서비스산업에 취업자의 평균증가율이 1.83%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2.3%이며,

세계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총 수출에서 서비스 수출 비중은 14.9%이며, GDP 가운데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고용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69.2%인 반면에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24.5%, 농산물의 고용 비중은 6.4%로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지만 G7 평균인 74.9%와 적지 않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2010년)은 58.17%, 제조업 39.27%, 농산물 2.56%로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한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1,964억 달러로 2000년 651억 달러에 비하여 3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서비스수출 규모는 953억 달러(전년대비 9.1% 증가)로 세계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1998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의 서비스수출이 906억 달러에서 2009년 736억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2006년부터 서비스수출의 증가로 서비스수지가 점차 개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그러나 지속적인 한국 서비스수지 적자는 서비스수출의 증가에 비해 가파른 수입의 증가에 원인이 있으며, 이는 경상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 참조).

<표 3> 한국의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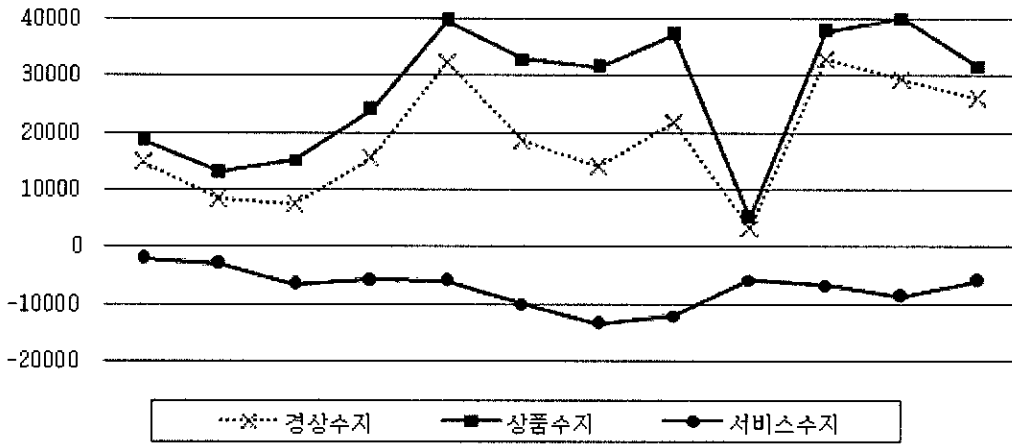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경상수지	14,802.9	18,606.5	21,769.7	3,197.5	32,790.5	29,393.5	26,068.2
상품수지	18,655.7	32,856.9	37,129.1	5,170.1	37,866	40,082.5	31,660
서비스수지	-2,036.5	-9,951.6	-11,967	-5,734.1	-6,640.5	-8,626	-5,849.5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그림 1> 한국의 무역수지 변화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한국 서비스무역의 주요 지역별 특징을 보면 미국, EU, 일본 그리고 중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EU 등의 선진국과의 서비스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폭이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과 중국 그리고 중동지역에서는 꾸준히 서비스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수출 주요 대상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137억 달러로 15.9%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 15.1%, 일본 12.5%, EU(27개국) 11.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수입의 주요 대상 지역으로는 미국이 256억 달러로 27%, EU(27개국) 18.8%, 중국 11.1% 일본 9.4%, 홍콩 4.9%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표 4>참조). 이와 같이 한국의 서비스무역 지역별 무역량 편차는 무역 대상국의 지리적 거리와 경제규모와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한국의 지역별 서비스무역 현황(2010년)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국	금액	비중	증가율	수입국	금액	비중	증가율
중국	13,728	15.9	41	미국	2,5642	27	19
미국	13,055	15.1	15	EU	17,884	18.8	12
일본	10,780	12.5	27	중국	10,585	11.1	23
EU	9,778	11.3	28	일본	8,972	9.4	20
아랍에미 레이트	5,040	5.8	-8	홍콩	4,633	4.9	28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한국의 서비스무역 규모 면에서는 2006년에서 2011년 간의 연 평균 변화율이 수출은 12.25%, 수입이 8.18%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서비스수지에서는 13.2%의 평균 변화율로 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서비스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종별로 살펴보면 운송서비스, 사업서비스, 여행서비스, 건설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으로 서비스산업의 전체 무역액 대비 해당 업종별 무역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운송서비스가 649억 달러로 3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에서 2011년 간의 서비스수지 평균 변화율이 37.7%로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다. 사업서비스는 547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무역 규모의 28.2%, 그리고 여행서비스가 318억 달러로 16.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송서비스 수지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으며, 이는 2011년 서비스산업 전체 수출 대비 3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사업서비스로써 2011년에 169.2억 달러의 적자로 2000년의 31.2억 달러 적자에 비하여 적자 규모가 5.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로는 정부서비스, 통신서비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행서비스 수지는 2011년에 71.6억 달러의 적자로 이는 2000년에 비하여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서비스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증가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업종별 수지에서 최근 흑자 폭이 가장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업종으로는 건설 서비스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금융서비스와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업종에서 서비스수지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참고).

<표 5> 한국의 서비스산업 업종별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06-11 평균 변화율
전체 서비스	수지	-2,037	-9,952	-13,332	-11,967	-5,734	-6,641	-8,626	-4,377	13.17
	수출	31,540	49,745	56,842	72,995	90,635	73,580	87,282	95,000	12.25
	수입	33,577	59,696	70,174	84,962	96,369	80,221	95,908	99,378	8.18
지적 재산권등 사용료	수지	-2,533	-2,652	-2,605	-3,399	-3,274	-3,989	-5,887	-2,981	-9.37
	수출	688	1,908	2,046	1,735	2,382	3,199	3,145	4,321	18.42
	수입	3,221	4,561	4,650	5,134	5,656	7,188	9,031	7,302	10.83
사업 서비스	수지	-3,128	-6,115	-7,173	-7,409	-14,279	-15,005	-13,588	-16,917	-23.23
	수출	7,200	9,422	10,532	14,421	12,965	12,088	16,834	18,911	14.33
	수입	10,328	15,538	17,705	21,829	27,245	27,094	30,422	35,827	15.52
개인, 문화,오락 서비스	수지	-23	-209	-302	-482	-364	-323	-385	-224	-0.23
	수출	137	268	369	448	528	523	637	794	16.97
	수입	160	477	671	929	891	846	1,022	1,018	9.96
정부 서비스	수지	363	686	681	612	270	419	64	57	-21.36
	수출	787	1,418	1,509	1,620	1,206	1,115	1,017	1,197	-3.38
	수입	425	733	828	1,009	936	696	953	1,140	9.09
통신 서비스	수지	-235	-330	-370	-366	-425	-502	-627	-672	-13.07
	수출	387	443	642	547	724	725	834	792	5.54
	수입	623	773	1,012	913	1,149	1,227	1,460	1,464	8.43
건설 서비스	수지	746	3,828	5,695	7,869	11,079	11,747	9,675	12,094	18.47
	수출	933	4,707	7,003	9,698	13,686	14,553	11,977	15,185	19.00
	수입	187	879	1,308	1,828	2,608	2,806	2,302	3,092	21.27
보험 서비스	수지	-78	-564	-580	-585	-277	-395	-367	-386	2.25
	수출	68	169	274	415	466	340	515	419	13.91
	수입	146	733	854	1,000	744	735	882	805	0.31
금융 서비스	수지	514	1,416	1,996	3,304	3,095	1,573	1,893	2,483	12.32
	수출	705	1,651	2,543	4,001	3,785	2,280	2,736	3,367	11.04
	수입	191	235	547	696	691	708	843	884	10.56
컴퓨터 및정보 서비스	수지	-81	-126	-350	-204	-268	-183	-263	-135	9.38
	수출	11	57	248	340	304	218	234	424	17.36
	수입	92	183	598	544	571	401	496	559	0.53
운송 서비스	수지	2,639	-54,889	2,674	4,481	7,998	5,242	9,307	9,260	37.72
	수출	13,687	23,877	25,807	33,556	44,768	28,693	38,982	37,057	11.69
	수입	11,048	78,766	23,133	29,076	36,770	23,451	29,675	27,797	7.23
여행 서비스	수지	-298	-9,600	-13,063	-15,837	-9,292	-5,221	-8,421	-7,158	3.52
	수출	6,834	5,806	5,788	6,138	9,774	9,819	10,359	12,304	18.00
	수입	7,132	15,406	18,851	21,975	19,065	15,040	18,780	19,463	2.14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2.3. 미국의 서비스무역 현황

미국의 무역규모는 199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시장의 개방화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13.95%이며, 세계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48%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총 수출에서 서비스 수출 비중은 28.65%이며, GDP 가운데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서비스 산업 고용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81.1%인 반면에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17.3%, 농산물의 고용 비중은 1.6%로 서비스 산업의 고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G7 평균인 74.9%에 비하여 미국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2011년)은 79.6%, 제조업 19.2%, 농산물 1.2%으로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규모는 4조 7,700억 달러로 이중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규모가 1조 370억 달러로써 무역규모의 21.7%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상수지와 상품수지는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한국의 무역구조와 대조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4,734억 달러이며, 여기에 상품수지의 적자가 7,352억 달러, 서비스수지의 흑자는 1,752억 달러로 무역적자 폭을 줄여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수출의 총계는 2조 1,050억 달러로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8.9%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1년 미국의 서비스수지는 2000년에 비하여 2.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미국의 무역수지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을 정점으로 경상수지 적자와 상품수지 적자 폭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반면에 서비스수지는 2009년을 정점으로 하여 흑자 폭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6> 미국의 무역수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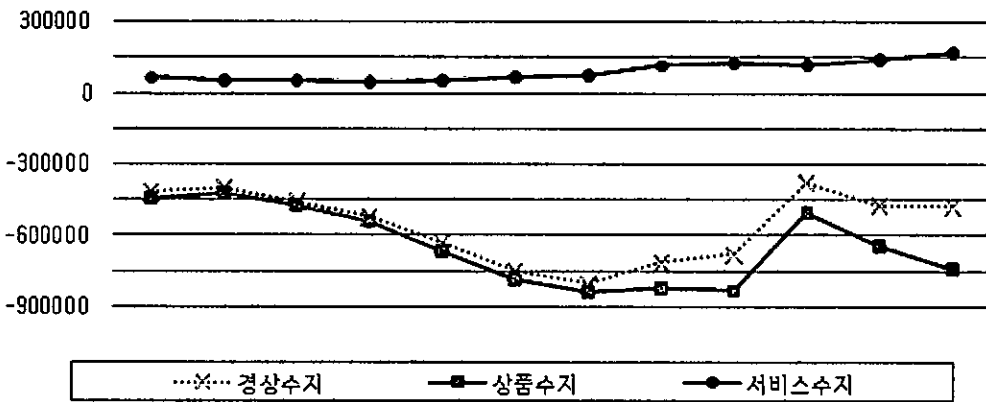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경상수지	-416,343	-745,780	-800,618	-710,299	-677,141	-376,554	-470,902	-473,441
상품수지	-443,865	-777,800	-832,896	-815,836	-827,136	-502,540	-642,359	-735,207
서비스수지	67,110	69,174	79,611	119,115	128,794	121,268	142,328	175,248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그림 2> 미국의 무역수지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미국의 지역별 서비스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EU(27), 캐나다, 일본 등의 순으로 서비스무역 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C(27)국가와의 서비스 무역 비중이 33%의 시장 점유율을 띠고 있다는 것은 서비스의 산업 내 무역과 수평적 분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선진국, NICs, 및 BRICs국가들과의 서비스무역을 선점하여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경제개방으로 미국은 대중국의 서비스수출이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의 통상압력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서비스수입이 9.96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서비스수출의 주요 대상 지역별로 살펴보면 EU(27), 캐나다, 일본, 멕시코, 중국, 스위스 순이며, 서비스 수입국으로는 EU(27), 버뮤다, 캐나다, 일본, 스위스, 멕시코 순

으로 나타났다(<표 7>참조).

<표 7> 미국의 지역별 서비스무역 현황(2010년)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국	금액	비중	증가율	수입국	금액	비중	증가율
EU(27)	169,098	31.8	-1	EU(27)	125,399	33.9	2
캐나다	50,521	9.5	18	버뮤다	31,740	8.6	-6
일본	44,750	8.4	12	캐나다	25,579	6.9	15
멕시코	24,110	4.5	4	일본	23,541	6.4	12
중국	21,135	4.0	32	스위스	19,665	45.3	6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미국의 전체 서비스수지는 흑자로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서 2011년까지 평균 변화율이 16.9%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서비스수출이 7.56%, 서비스수입이 4.98%의 평균 변화율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무역의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여행서비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미국의 전체 서비스무역에서 2,367억 3천4백만 달러로 22.9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서비스가 1,861억 8백만 달러로 18.09%, 운송서비스가 1,641억 6천 6백만 달러로 15.96%의 비중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의 평균 변화율에서 가장 높은 변화율을 보이고 있는 업종은 통신서비스로 65.87%이고, 운송서비스가 19.15%, 금융서비스가 12.05%의 평균 변화율의 높은 순으로 보이고 있다.

미국의 서비스산업의 업종 가운데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보험서비스 그리고 정보서비스만이 서비스수지 적자 수준인 반면에 지적재산권등사용료, 사업서비스, 개인·문화 및 오락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서비스,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그리고 여행서비스 업종은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표 8> 참조).

미국의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특이한 현상으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변화율 추이에서 건설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그리고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의 업종에서만 수출에 비하여 수입 측면에서 평균 변화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타 업종에서는 수입에 비하여 수출 측면에서 평균 변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세계 서비스 수출시장에서 월등히 높은 점유율을 갖

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8> 미국의 서비스산업 업종별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06-11 평균 변화율
전체 서비스	수지	69,033	72,108	82,402	122,163	131,769	124,640	145,827	170,336	16.90
	수출	289,141	376,674	421,532	492,578	537,875	508,456	550,746	599,649	7.56
	수입	220,108	304,566	339,130	370,415	406,106	383,816	404,919	429,313	4.98
지적 재산권등 사용료	수지	26,765	39,784	47,208	58,449	61,054	55,523	60,270	68,985	8.44
	수출	43,233	64,396	70,726	83,380	88,895	83,447	92,054	103,797	8.29
	수입	16,468	24,612	23,518	24,931	27,841	27,924	31,784	34,813	8.27
사업 서비스	수지	21,123	30,870	28,829	37,863	37,534	37,916	41,979	43,588	9.21
	수출	45,569	67,363	76,026	91,893	101,829	102,615	111,397	114,848	8.82
	수입	24,446	36,493	47,197	54,030	64,295	64,699	69,418	71,260	8.81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	수지	8,493	9,172	11,548	13,240	11,901	12,367	12,301	13,532	3.59
	수출	8,716	10,300	13,254	15,058	13,977	14,785	14,515	15,906	3.99
	수입	223	1,128	1,706	1,818	2,076	2,418	2,214	2,374	7.20
정부 서비스	수지	-8,332	-18,161	-14,324	-13,557	-16,572	-17,209	-16,408	-13,776	-0.01
	수출	6,752	12,860	16,421	17,981	15,644	17,680	18,604	20,269	4.74
	수입	15,084	31,021	30,745	31,538	32,216	34,889	35,012	34,045	2.12
통신 서비스	수지	-1,798	-96	478	727	1,948	2,331	2,957	4,814	65.87
	수출	4,128	5,057	7,426	8,562	10,301	10,278	11,324	12,988	12.05
	수입	5,926	5,153	6,948	7,835	8,353	7,947	8,367	8,174	3.50
건설 서비스	수지	489	175	205	201	434	453	260	208	11.17
	수출	1,815	1,346	1,856	2,738	3,885	4,032	2,611	2,235	8.71
	수입	1,326	1,171	1,651	2,537	3,451	3,579	2,351	2,027	9.06
보험 서비스	수지	-7,653	-21,144	-29,937	-36,675	-45,510	-49,187	-47,162	-42,211	-8.01
	수출	3,631	7,566	9,445	10,841	13,403	14,427	14,605	15,351	10.48
	수입	11,284	28,710	39,382	47,516	58,913	63,614	61,767	57,562	8.58
금융 서비스	수지	11,181	27,752	33,149	42,179	45,809	48,847	52,584	57,919	12.05
	수출	22,117	39,878	47,882	61,376	63,027	62,444	66,387	72,989	9.24
	수입	10,936	12,126	14,733	19,197	17,218	13,597	13,803	15,070	1.93
컴퓨터 및정보 서비스	수지	719	-1,162	-3,355	-3,125	-3,775	-3,564	-5,619	-8,664	-24.04
	수출	6,949	9,434	10,079	11,987	13,120	13,483	13,766	15,313	8.90
	수입	6,230	10,596	13,434	15,112	16,895	17,047	19,385	23,977	12.52
운송 서비스	수지	-14,810	-26,453	-24,219	-17,389	-13,273	-5,864	-7,485	-6,308	19.15
	수출	45,515	52,313	57,140	65,501	74,671	61,410	70,637	78,929	7.53
	수입	60,325	78,766	81,359	82,890	87,944	67,274	78,122	85,237	1.94
여행 서비스	수지	32,856	31,371	32,820	40,250	52,219	43,027	52,150	62,906	15.32
	수출	100,716	106,161	111,277	123,261	139,123	123,855	134,846	149,640	6.50
	수입	67,860	74,790	78,457	83,011	86,904	80,828	82,696	86,734	2.14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Ⅲ. 한국의 서비스무역 구조

3.1. 한국의 서비스무역 구조

3.1.1. 국제시장점유율(International Market Share : IMS)

국제시장점유율은 일국의 특정 상품(업종)의 수출액 또는 수입액이 세계시장 전체 수출액 또는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일국의 특정상품(업종)의 국제경쟁력이 높을수록 국제시장 전체의 해당 상품(업종) 총 수출액에서 일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그 일국은 그 상품(업종)에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IMS_{ij} = \frac{X_{ij}}{X_{iw}} \times 100 (\%)$$

IMS_{ij} : j 국가의 i 상품 무역에서의 국제시장 점유율

X_{ij} : 일정기간 중 j 국가의 i 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X_{iw} : 일정기간 중 전 세계의 i 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한국의 서비스무역은 전 세계 서비스 무역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00년 ~ 2011년 기간 동안 평균 2.1%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다. 2008년 한국의 환율 상승으로 세계 서비스무역 시장의 점유율이 2.32%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업종별 전 세계 서비스무역(수출) 시장 점유율은 건설서비스(14.92%), 운송서비스(4.31%)를 제외하고는 전체의 평균 점유율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2006년 10.37%로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4.9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00년 9.3억 달러에서 2011년 152억 달러로 16배의 증가한 결과로서 해외 플랜트(산업설비), 건축, 토목 등의 수출이 증가한 결과로 추정 된다. 반면에 전 세계 서비스무역 시장에서 점유율이 취약한 업종으로는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0.17%), 보험서비스(0.49%), 통신서비스(0.78%) 등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다. 보험서비스의 경우 외국의 경쟁기업에 비해 열악한 자본구조와

위험 분산을 위한 재보험가입 및 재보험료의 지급 증가로 보험서비스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는 2007년을 기점으로 점유율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9> 참조).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의 경우 2000년 87억 달러에서 2011년에 159억 달러로 1.8배 증가한 것은 최근의 K팝과 한국 드라마 확산 등의 한류 열풍으로 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시장점유율의 시장점유율 단순 절대적 비교는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 간의 상대적인 결과 수치인 경쟁력 평가와 비교우위의 판단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통계자료의 발간 기관에 따라 수치 차이가 있고 여기에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 결과도 상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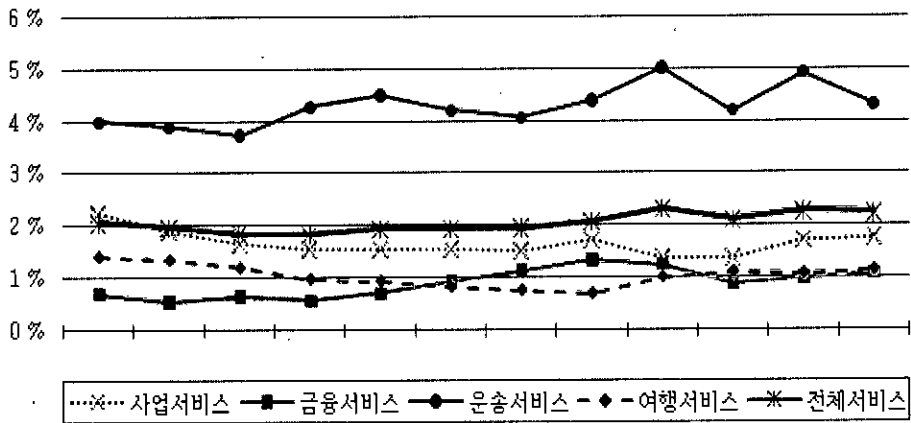
<표 9> 한국의 서비스무역 IMS 추이

단위 : %

한국 IMS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서비스	2.07	1.85	1.94	1.96	2.09	2.32	2.11	2.28	2.24
지적재산권등사용료	0.81	1.30	1.27	1.26	0.91	1.10	1.48	1.32	1.61
사업서비스	2.23	1.53	1.55	1.51	1.71	1.37	1.37	1.72	1.77
개인,문화,오락서비스	0.58	0.28	0.83	1.02	1.10	1.26	1.29	1.42	1.52
정부서비스	2.59	2.69	2.50	2.40	2.39	1.77	1.69	1.45	1.61
통신서비스	1.16	0.80	0.75	0.90	0.66	0.74	0.78	0.89	0.78
건설서비스	3.02	5.19	8.33	10.37	11.37	12.53	14.80	12.67	14.92
보험서비스	0.27	0.06	0.34	0.44	0.55	0.56	0.43	0.64	0.49
금융서비스	0.71	0.58	0.92	1.14	1.35	1.26	0.88	0.99	1.09
컴퓨터및정보서비스	0.02	0.04	0.05	0.19	0.21	0.15	0.11	0.11	0.17
운송서비스	3.99	4.27	4.20	4.06	4.38	5.03	4.19	4.93	4.31
여행서비스	1.43	0.99	0.84	0.76	0.70	1.02	1.13	1.09	1.15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그림 3> 한국 서비스무역의 주요 업종별 IMS 변화 추이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3.1.2.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 RCA)

현시비교우위지수는 각국의 비교우위체계를 검토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수로 산업별(업종별) 수출경쟁력을 나타낸다. RCA는 발라샤(B. Balassa ;1965)¹⁾에 의해 고안되어 그 후 볼라스(T. Vollrath : 1991)²⁾의한 현시선호비교우위지수로 발전하여 왔다. 본 연구에는 수입액에 상관없이 수출액만을 기준으로 RCA지수를 산출한다는 약점을 보완한 페르토 & 허바드(Ferto, I. and L. J. Hubbard)³⁾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하며, RCA지수는 1을 기준으로 영(0)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지게 되므로 비대칭적인 형태를 가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RCA지수의 값이 -1에서 +1까지 대칭적인 값을 가지도록 변형된 RCA지수 식은 다음과 같다.

$$RCA_{ij} = \frac{(X_{ij} / X_{iw}) - 1}{(X_j / X_w) + 1}$$

RCA_{ij} : 일정기간 중 i 상품 무역에서 j 국가의 현시비교우위지수

1) Balassa, B., Competitiveness of American Manufacturing in World Market, New York: Hooper, 1965.
 2) Vollrath, T., "A theoretical evaluation of alternative trade intensity measures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30, 1991.
 3) Ferto, I. and L.J. Hubbar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Competitiveness in Hungarian Agri-Food Sectors", World Economy 26(2), 2003.

X_w : 일정기간 중 전 세계의 전체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X_{iw} : 일정기간 중 전 세계의 i 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X_j : 일정기간 중 j 국가의 전체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X_{ij} : 일정기간 중 j 국가의 i 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여기서 변형된 RCA지수가 정(+)^{의 값}($RCA > 0$)을 가지면 국제경쟁력이 있음을 의미하며, 음(-)^{의 값}($RCA < 0$)을 가지면 국제경쟁력이 열위에 있음을 나타낸다.

서비스무역의 업종별 RCA지수의 계산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WTO의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에 수록된 통계를 사용하였다.

2000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RCA지수의 변화 추이는 <표 10>와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국의 서비스무역 업종별 RCA지수에 의하면 건설서비스와 운송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높으며, 반면에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여행서비스,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등은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하여 비교열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2009년에 81개국에서 59건의 계약으로 491억 달러를 수주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세계 건설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수준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중동 수출이 전체의 50%이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시아가 33%, 중남미 11% 순으로 차지하고 있어 중동과 아시아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송서비스의 경우는 수출위주의 경제정책과 기업들의 대외지향적인 마케팅 그리고 부산, 광양항, 인천공항 등 인프라 구축으로 자원물동량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운송서비스는 2000년에 RCA지수가 0.32으로 점차 비교우위를 확보하여 왔으나 2009년 이후부터 지수가 하락하여 비교우위 정도가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운수업체 규모가 글로벌기업에 비하여 자본력이 영세하고 세계경기 침체로 대체수요가 적은 것에 기인한다.

사업서비스의 경우는 2008년을 기점으로 점차 RCA지수가 점차 개선되어가는 추세로 보인다. 사업서비스는 경제성장 및 경제전체의 혁신에 기여도가 매우 큰 산업이고 지식 집약적이며 고용창출효과가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부가가치 업종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업서비스 업계의 영세성과 비전문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짧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와 전문화 그리고 정부의 조세 및 금융지원을 통한 산업의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서비스는 2007년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다소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오다가 2008년부터 다시 비교열위로 전환되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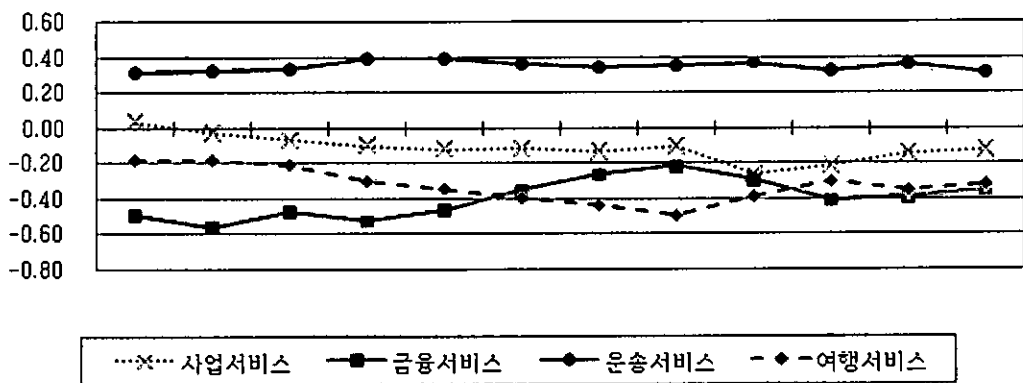
용서비스는 세계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점차 RCA지수가 개선 되어 오다가 2007년을 기점으로 다시 악화되어 가고 있다.

<표 10> 한국의 서비스무역 RCA 지수 추이

한국 RCA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적재산권동사용료	-0.44	-0.17	-0.21	-0.22	-0.40	-0.36	-0.18	-0.27	-0.16
사업서비스	0.04	-0.10	-0.11	-0.13	-0.10	-0.26	-0.21	-0.14	-0.12
개인,문화,오락서비스	-0.56	-0.73	-0.40	-0.32	-0.31	-0.30	-0.24	-0.23	-0.19
정부서비스	0.11	0.18	0.13	0.10	0.07	-0.13	-0.11	-0.22	-0.16
통신서비스	-0.28	-0.39	-0.44	-0.37	-0.52	-0.51	-0.46	-0.44	-0.49
건설서비스	0.19	0.47	0.62	0.68	0.69	0.69	0.75	0.70	0.74
보험서비스	-0.77	-0.93	-0.70	-0.63	-0.59	-0.61	-0.66	-0.56	-0.64
금융서비스	-0.49	-0.53	-0.35	-0.26	-0.21	-0.29	-0.41	-0.39	-0.35
컴퓨터및정보서비스	-0.98	-0.96	-0.95	-0.82	-0.82	-0.88	-0.90	-0.91	-0.86
운송서비스	0.32	0.39	0.37	0.35	0.35	0.37	0.33	0.37	0.32
여행서비스	-0.18	-0.30	-0.40	-0.44	-0.50	-0.39	-0.30	-0.35	-0.32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그림 4> 한국 서비스무역의 주요 업종별 RCA 지수 변화 추이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3.1.3.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 TSI)

무역특화지수는 특정 상품(업종)이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지 또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순수출비율지수 또는 국제경쟁력지수로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TSI는 특정 상품(업종)의 총 수출액과 총 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하여 해당 상품(업종)의 비교우위를 보여 주는 지수이다.

TSI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여기서 $0.5 \leq TSI \leq 1$ 인 경우는 비교우위가 매우 강하고, $0 < TSI < 0.5$ 인 경우는 비교우위가 강하고 TSI가 0이면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0.5 < TSI < 0$ 이면 비교열위인 것으로, $-1 \leq TSI \leq -0.5$ 이면 매우 비교열위인 상태로 평가한다. TSI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SI_{ij} = \frac{X_{ij} - M_{ij}}{X_{ij} + M_{ij}}$$

TSI_{ij} : j 국가의 i 상품 무역에서의 무역특화지수

X_{ij} : 일정기간 중 j 국가의 i 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M_{ij} : 일정기간 중 j 국가의 i 상품에 대한 총 수입액

2000년 ~ 2011년 기간 동안의 한국의 무역특화지수(TSI)의 변화 추이를 <표 11>과 <그림 5>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서비스의 경우 무역특화지수가 0.66으로 비교우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흥공업국의 국가의 플랜트 및 사회인프라시설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건설시장의 호조와 고 환율과 더불어 한국 건설사업의 경쟁력 개선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 ~ 2011년 기간 중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가 연 평균 34%씩 증가함에 따라 동 기간 중 건설서비스 수지 흑자도 매년 32.2%의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서비스와 운송서비스 또한 비교우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점차 비교우위 정도가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송서비스의 경우 유럽의 재정위기, 세계 경기침체 그리고 출구전략의 본격시행으로 물량이 감소의 영향으로 비교우위 정도가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중국 항만의 약진으로 한국의 해운업계 진출이 약화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금융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의 수입액과 지급액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직접적인 금융서비스 업종의 비교우위 정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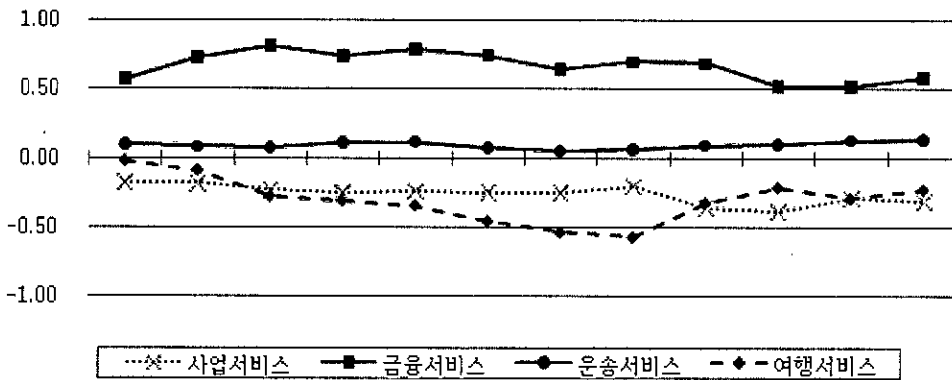
나타내는 척도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국의 서비스무역 업종은 비교열위에 있는 업종이 대부분이며 이 중에서 비교열위 정도가 높은 업종으로는 보험서비스, 사업서비스, 통신서비스, 지적재산권등사용료 등의 업종을 들 수 있다. 2011년 지적재산권등사용료는 비교열위 정도가 소폭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특허 경쟁력이 미약하나마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특허는 미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그리고 유럽 특허청에 등록된 건수는 2009년에 2,066건, 2010년에는 2,18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5위의 수준에 있다. 정부서비스의 경우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우위정도가 높았으나 2010년 이후부터 비교우위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대사관, 영사관, 군부대와 방위청에 대한 거래가 급격히 감소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 11> 한국의 서비스무역 TSI 지수 추이

한국 TSI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적재산권등사용료	-0.65	-0.46	-0.41	-0.39	-0.49	-0.41	-0.38	-0.48	-0.26
사업서비스	-0.18	-0.25	-0.25	-0.25	-0.20	-0.36	-0.38	-0.29	-0.31
개인,문화,오락서비스	-0.08	-0.55	-0.28	-0.29	-0.35	-0.26	-0.24	-0.23	-0.12
정부서비스	0.30	0.45	0.32	0.29	0.23	0.13	0.23	0.03	0.02
통신서비스	-0.23	-0.34	-0.27	-0.22	-0.25	-0.23	-0.26	-0.27	-0.30
건설서비스	0.67	0.68	0.69	0.69	0.68	0.68	0.68	0.68	0.66
보험서비스	-0.36	-0.84	-0.63	-0.51	-0.41	-0.23	-0.37	-0.26	-0.32
금융서비스	0.57	0.75	0.75	0.65	0.70	0.69	0.53	0.53	0.58
컴퓨터및정보서비스	-0.79	-0.64	-0.52	-0.41	-0.23	-0.31	-0.30	-0.36	-0.14
운송서비스	0.11	0.12	0.08	0.05	0.07	0.10	0.10	0.14	0.14
여행서비스	-0.02	-0.31	-0.45	-0.53	-0.56	-0.32	-0.21	-0.29	-0.23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그림 5> 한국 서비스무역의 주요 업종별 TSI 지수 변화 추이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3.2. 미국의 서비스무역 구조

3.2.1. 국제시장점유율

미국의 국제시장점유율은 세계 서비스시장에서 2000 ~ 2011년 기간 동안 연 평균 14%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0년에 미국은 세계 서비스시장의 점유율이 19%의 수준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7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13.74%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세계 서비스시장의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여타 선진국들의 서비스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2011년 국제시장점유율의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의 점유율이 38.74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 업종이 30.53%로 높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부서비스와 금융서비스는 2000년 이후 점진적으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운송서비스, 건설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그리고 여행서비스는 점차 국제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와 건설서비스 업종이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경우는 2005년 이후 점유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통신서비스의 수출 증가가 수입증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표 12>과 <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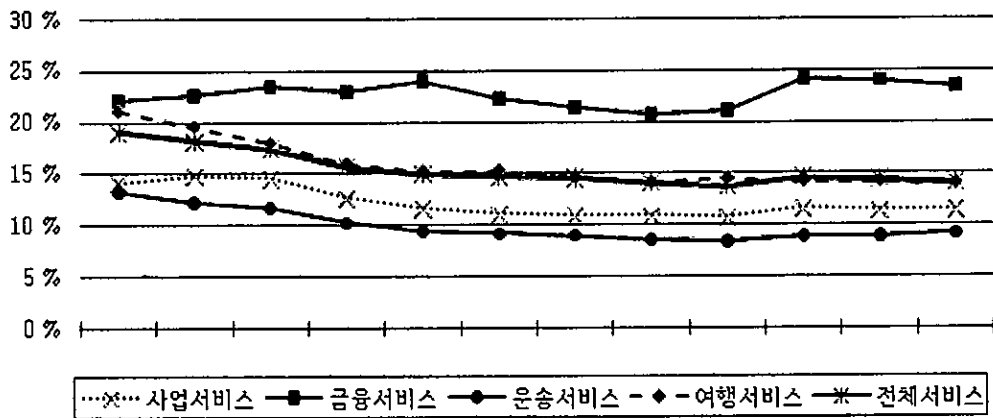
<표 12> 미국의 서비스무역 IMS 추이

단위 : %

미국 IMS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서비스	19.00	15.64	14.69	14.51	14.12	13.74	14.58	14.36	14.13
지적재산권등사용료	51.16	46.62	42.73	43.63	43.59	41.10	38.53	38.69	38.74
사업서비스	14.14	12.64	11.06	10.93	10.87	10.76	11.64	11.39	11.51
개인.문화.오락서비스	36.78	37.26	32.09	36.61	37.00	33.36	36.42	32.40	30.53
정부서비스	22.21	14.51	22.68	26.15	26.48	23.01	26.79	26.54	26.43
통신서비스	12.32	11.07	8.51	10.42	10.34	10.57	11.09	12.05	12.71
건설서비스	5.87	5.42	2.38	2.75	3.21	3.56	4.10	2.76	3.63
보험서비스	14.18	10.96	15.44	15.33	14.26	16.07	18.06	18.03	17.85
금융서비스	22.16	22.95	22.32	21.51	20.75	21.06	24.17	24.06	23.52
컴퓨터및정보서비스	14.30	10.82	8.78	7.75	7.45	6.56	6.93	6.37	6.14
운송서비스	13.27	10.23	9.194	8.989	8.55	8.383	8.97	8.932	9.177
여행서비스	21.01	15.94	15.28	14.66	14.12	14.5	14.19	14.19	14.02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그림 6> 미국 서비스무역의 주요 업종별 IMS 변화 추이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3.2.2. 현시비교우위 지수

2000년~ 2011년 기간 동안 미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 추이는 <표 13>과 <그림7>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등사용료가 미국의 서비스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비교우위 수준을 보이고 있는 업종으로 2007년 RCA 지수가 0.51로 증가해 오다가 다시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의 경우 2007년까지 RCA 지수가 0.45로 상승해 오다가 2008년부터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서프라이임 모기지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경기침체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서비스의 경우 2003년 RCA 지수가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어 점차 상승하고 있고, 금융서비스의 경우도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하여 RCA 지수가 점차 상승하며 높은 비교우위 지수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건설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사업서비스의 경우는 비교열위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이러한 결과의 도출에 있어서 미국의 건설서비스의 통계자료는 WTO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다른 통계기관과의 수치 차이가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혀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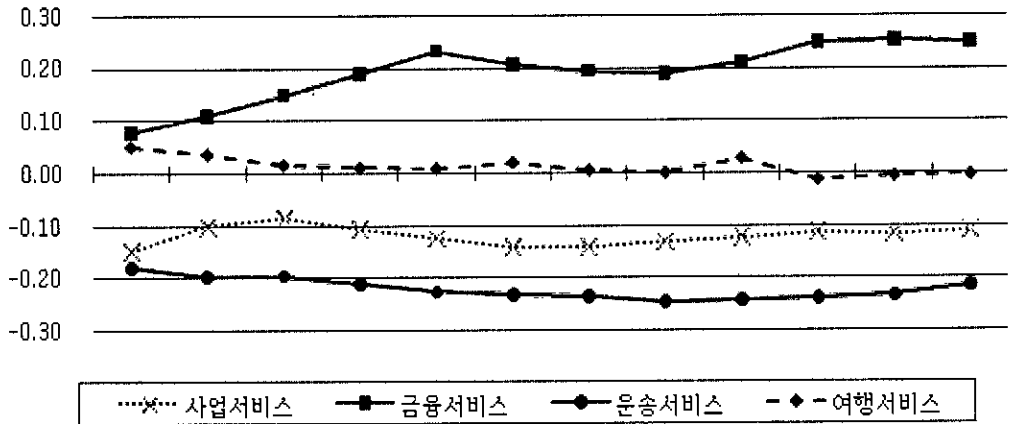
미국이 운송서비스의 경우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교열위 정도가 증가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신서비스와 정부서비스의 경우는 2000년 이후 비교우위 정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보험서비스의 경우는 2003년 이후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고, 미국의 여행서비스의 경우는 반대로 2009년부터 현시비교우위 지수가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어 비교우위 정도가 떨어지다가 다시 2011년에는 RCA 지수가 양(+)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3> 미국의 서비스무역 RCA 지수 추이

미국 RCA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적재산권등사용료	0.46	0.50	0.49	0.50	0.51	0.50	0.45	0.46	0.47
사업서비스	-0.15	-0.11	-0.14	-0.14	-0.13	-0.12	-0.11	-0.12	-0.11
개인,문화,오락서비스	0.32	0.41	0.37	0.43	0.45	0.42	0.43	0.39	0.37
정부서비스	0.08	-0.04	0.21	0.29	0.30	0.25	0.30	0.30	0.29
통신서비스	-0.21	-0.17	-0.27	-0.16	-0.15	-0.13	-0.14	-0.09	-0.05
건설서비스	-0.53	-0.48	-0.72	-0.68	-0.63	-0.59	-0.56	-0.68	-0.63
보험서비스	-0.15	-0.18	0.02	0.03	0.01	0.08	0.11	0.11	0.12
금융서비스	0.08	0.19	0.21	0.19	0.19	0.21	0.25	0.25	0.25
컴퓨터및정보서비스	-0.14	-0.18	-0.25	-0.30	-0.31	-0.35	-0.36	-0.39	-0.39
운송서비스	-0.18	-0.21	-0.23	-0.24	-0.25	-0.24	-0.24	-0.23	-0.21
여행서비스	0.05	0.01	0.02	0.00	0.00	0.03	-0.01	-0.01	0.00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그림 7> 미국 서비스무역의 주요 업종별 RCA 지수 변화 추이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3.2.3. 무역특화지수

미국의 서비스무역 업종별로 무역특화지수(TSI)를 2000년 ~ 2011년 기간 동안 살펴 보면, 운송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보험서비스 그리고 정부서비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서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의 경우 2000년 이후 점차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2000 ~ 2011년 기간 무역특화지수가 평균 0.80으로 국제경쟁력이 매우 높은 업종으로 기록되고 있다. 금융서비스와 지적재산권등사용료 서비스의 경우는 2000년 이후 무역특화지수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고, 또한 미국은 높은 수준의 국제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험서비스의 경우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미국은 보험서비스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초과하여 증가해 왔다는 것은 수입특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는 2005년부터 음(-)의 지수로 전환되어 점차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통신서비스와 여행서비스의 경우는 지수가 양(+)을 유지하면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아 비교우위 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와 <그림 8>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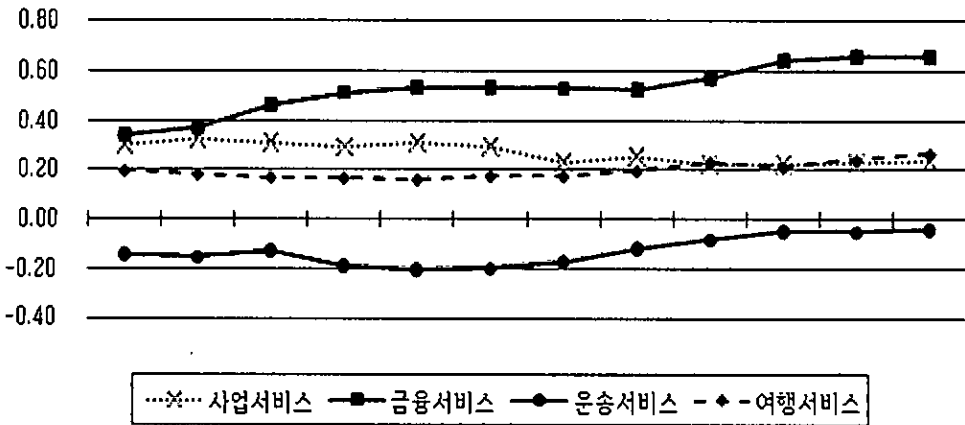
미국의 서비스무역 업종별 무역특화지수에 의하여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 수입에 비하여 서비스수출이 상당히 의미 있는 비교우위 수준을 누리고 있음 입증하고 있다.

<표 14> 미국의 서비스무역 TSI 지수 추이

미국 TSI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적재산권동사용료	0.45	0.42	0.45	0.50	0.54	0.52	0.50	0.49	0.50
사업서비스	0.30	0.29	0.30	0.23	0.26	0.23	0.23	0.23	0.24
개인,문화,오락서비스	0.95	0.93	0.80	0.77	0.78	0.74	0.72	0.74	0.73
정부서비스	-0.38	-0.60	-0.41	-0.30	-0.27	-0.35	-0.33	-0.31	-0.30
통신서비스	-0.18	0.00	-0.01	0.03	0.04	0.10	0.13	0.15	0.23
건설서비스	0.16	0.08	0.07	0.06	0.04	0.06	0.06	0.05	0.05
보험서비스	-0.51	-0.62	-0.58	-0.61	-0.63	-0.63	-0.63	-0.62	-0.58
금융서비스	0.34	0.51	0.53	0.53	0.52	0.57	0.64	0.66	0.66
컴퓨터및정보서비스	0.05	0.04	-0.06	-0.14	-0.12	-0.13	-0.12	-0.17	-0.22
운송서비스	-0.14	-0.19	-0.20	-0.17	-0.12	-0.08	-0.05	-0.05	-0.04
여행서비스	0.19	0.16	0.17	0.17	0.20	0.23	0.21	0.24	0.27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그림 8> 미국 서비스무역의 주요 업종별 TSI 지수 변화 추이



자료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12

Ⅳ 한·미간의 서비스무역 구조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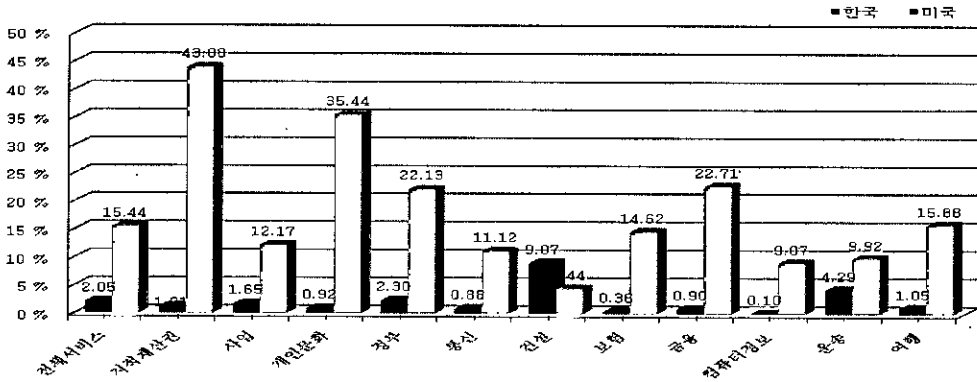
4.1. 한·미간의 국제시장점유율 비교

2000년 ~ 20011년 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의 국제시장점유율의 서비스업종별 평균 점유율은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미국의 국제시장점유율은 경제규모 면에서 크게 차이는 있으나 한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세계 서비스시장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전체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평균 15.44%인데 비하여 한국은 2.05%의 점유율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등사용료 서비스와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의 경우 각각 43.88%와 35.44%의 매우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금융시장의 중심지로서 금융서비스의 점유율 또한 22.71%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국제시장점유율은 건설서비스와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제시장점유율이 10%을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9> 참조).

한국의 국제시장점유율은 미국의 국제시장점유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비중과 미국과의 격차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문화 및 오락서비스의 경우 한국의 국제시장점유율과 미국과 비교했을 때 38.5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역시 지적재산권등사용료 서비스 업종에서도 36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건설서비스와 운송서비스 업종에서 미국과의 점유율 격차가 다소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시장점유율이 평균 2% 내외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세계 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림 9>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업종별 평균 IMS



주 : 업종별 비중은 2000~2011년 기간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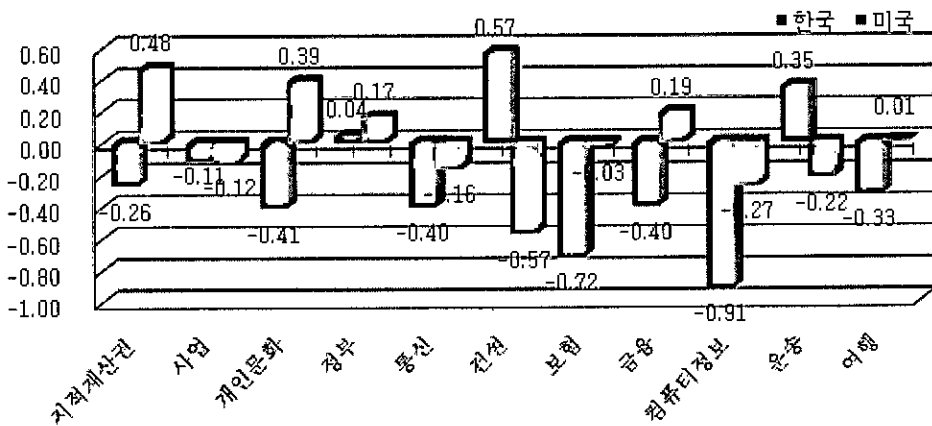
4.2. 한·미간의 현시비교우위지수 비교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무역 비교우위 업종은 <그림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0년 ~ 2011년 기간 동안 평균 RCA지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서비스 업종별 비교우위는 건설서비스(0.57)와 운송서비스(0.35)가 서비스 업종들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건설서비스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평균 RCA지수가 각각 0.57, -0.57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업종들 중에서 보험서비스(-0.72)와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0.91)가 가장 비교열위에 있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사업서비스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의 평균 RCA지수가 음(-)의 값을 보이면서 비슷한 비교열위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균 RCA지수의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의 서비스 업종별 평균 RCA지수가 미국에 비하여 총체적으로 비교열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0년 ~ 2011년 기간 동안 평균 RCA지수가 가장 높은 서비스 업종으로는 지적재산권등사용료(0.48) 서비스업종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개인,문화 및 오락서비스가 0.39로 강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부서비스, 금융서비스 및 여행서비스 업종도 한국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사업서비스는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종으로써 미국에 비하여 미미한 비교우위수준에 있지만 경쟁력에 있어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비하여 광고, 연구개발, 법률, 회계 등 사업 기술 전문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편이다.

한국과 미국간의 RCA지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면 한국은 건설서비스와 운송서비스 업종에 있어서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 산업인 지적재산권등사용료,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 사업서비스, 금융서비스 업종에서의 경쟁력은 미국에 비하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업종별 평균 RCA 지수



주 : 업종별 지수는 2000~2011년 기간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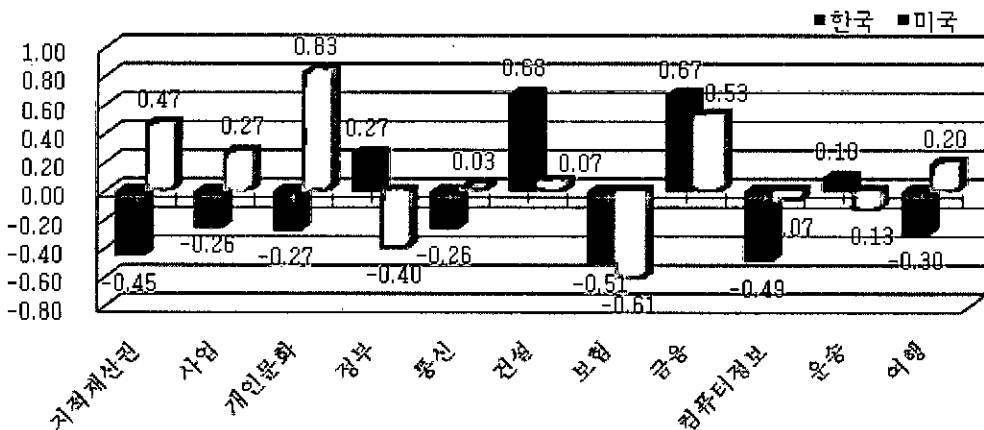
4.3. 한·미간의 무역특화지수 비교

2000년 ~ 2011년 기간 동안의 한국과 미국간의 서비스무역 업종별 평균 무역특화지수를 <그림 11>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서비스무역 업종별 무역특화지수를 미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무역특화지수가 양(+)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종으로는 정부서비스(0.27), 건설서비스(0.68), 금융서비스(0.67) 그리고 운송서비스(0.10) 업종 등에서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서비스의 경우는 한국이 미국에 비하여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지만 미국 또한 건설서비스 업종에서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한국의 서비스무역

이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업종으로는 지적재산권등사용료(-0.45) 업종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으로는 보험서비스(-0.61)와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0.49)로 나타났다. 한국의 금융서비스의 경우는 미국과의 평균 무역특화지수가 비슷한 수준의 양(+)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높은 경합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보험서비스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이 평균 무역특화지수가 음(-)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동시에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서비스무역 업종별 평균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 업종(0.83)이 가장 높은 지수의 값으로 한국에 비하여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등사용료(0.47), 사업서비스(0.27), 여행서비스(0.20) 등의 업종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하여 국제경쟁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서비스업종 중에서 한국에 비하여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으로는 정부서비스(-0.40)와 운송서비스(-0.13)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의 서비스무역 업종에서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한국에 비하여 서비스무역 구조가 고부가치 업종과 지식서비스 업종에서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1>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업종별 평균 TSI 지수



주 : 업종별 지수는 2000~2011년 기간 평균임

V. 결론 및 시사점

세계무역환경의 글로벌화와 지역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서비스무역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한국의 상품무역액이 1조 달러 달성으로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의 하나로 서비스무역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상품무역 확대에만 편중된 인식으로 한국 서비스무역은 양적 질적 성장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미국은 1970년대 전후로 신흥공국들로부터 제조업 분야에 추격을 받아왔기에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을 크게 늘려 대응한 것은 한국 서비스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2006 ~ 2011년 기간 동안 서비스 수출과 수입이 각각 연평균 12.25%와 8.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서비스 수출과 수입이 각각 연평균 7.56%와 4.98%의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간의 FTA협정 체결로 향후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확대됨으로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서비스 무역구조는 서비스 무역의 증가로 인해 서비스 적자 확대로 연결되는 문제점과 서비스 무역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에 한국의 서비스무역 총 규모에서 사업서비스, 운송서비스 그리고 여행서비스의 세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77.9%로 서비스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면, 지역별 서비스 무역구조는 미국, EU, 일본에 편중되어 있고 최근 중국과의 서비스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서비스와 여행서비스는 적자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적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서비스, 건설서비스 그리고 금융서비스는 서비스 수지의 대표적인 흑자업종으로 특히 운송서비스의 경우 해운산업의 발달, 국토의 지리적 환경, 항만의 발달 그리고 대외지향적인 경제발전 전략 등에 힘입어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결국 운송서비스는 해당국의 무역규모보다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 운송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수출입화물의 아국적선 이용률을 높이고 해운업의 규모 확장을 위한 선박금융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여행서비스 구조는 유럽 남부지역과 같은 계절적인 관광객의 흡입요인도 부족하고 인구밀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며 관광자원도 희소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득증대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증가, 유학 및 연수 수요 증대 그리고 대외지향적인 경제

구조로 여행수지 적자요인이 구조적으로 산적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행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등 의료관광 시장을 개척하고 장기 체류형 웰빙체험 및 한방의료 등 고 품격 의료관광 정책 육성이 필요하다. 최근 유로존 위기의 지속과 미국의 재정절벽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해외건설 및 운송시장의 부진이 예상됨으로 서비스 수지는 흑자는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여기에 원화가치는 큰 폭의 강세를 기록하기는 어렵지만 무역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의 자금 유입 증대 등에 따른 점진적인 원화 강세로 여행수지 등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사업서비스는 한국의 서비스 업종 가운데 지속적으로 적자 폭이 확대되어 온 서비스 업종으로써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전반의 구조조정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경영컨설팅, 회계, 법률, 설계 및 엔지니어링 등이 비거주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에 기인한다. 사업서비스는 품질향상, 기업경영 개선 및 제품광고, 기업의 보조 관리 업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경제성장 및 경제전체의 혁신에 기여도가 매우 높은 지식집약적 산업이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업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외기업과의 제휴, M&A 등을 통해 선진기법을 도입하고 분야별로 규제완화, 재정·세제지원, 시장진출 등의 적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다원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한국의 서비스무역 구조 개선과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한국 서비스산업선진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을 중시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한국의 일자리 창출은 점차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므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동일하게 대우하거나 오히려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 무역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고급 서비스 인력 양성과 지식축적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서비스 업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 기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서비스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수출지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서비스 업종, 서비스 기능별로 차별화된 수출형태에 따라 지원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비스 업종 수출 전반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전략적인 수출서비스의 육성에는 필수적이다. 셋째,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확대와 고부가가치 창출 등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서비스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및 산업구조 강화 등을 위한 단계적이고 국가적인 서비스혁신 프로그램을 정립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서비스산업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우종 · 최용민(2011), "서비스산업 지원체제 혁신방안 - 서비스수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무역협회.
- 박문서(1989), 한국의 서비스무역 구조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준(2011), "주요 서비스 무역수지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 운송, 여행(교육), 사업, 지재권 서비스를 중심으로 -", 한국무역협회.
- 박진우 · 최용민(2011),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고용 비교 - 지식서비스산업 및 기반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 한국무역협회.
- 이경희 · 박문수(2009),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산업간 및 산업내 무역구조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 이경희 · 박문수(2011), "한·미·일 서비스 무역구조 비교 분석과 시사점", KIET.
- 정영식 · 고덕기 · 정대선(2012), "한국의 서비스수지 개선 배경 및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 조현승(2008),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중심으로 -", KIET.
- 조현승 외(2009), "서비스산업 무역구조 및 무역결정요인 분석", KIET.
- 최용민(2010), "우리나라 서비스수출의 문제점과 경쟁력 현황", 한국무역협회.
- Aaditya Mattoo, Robert M. stern, and Gianni Zanini(2007), A HANDBOOK OF INTERATIONAL TRADE IN SERVICES, OXFORD UNIVERSITY PRESS.
- Balassa, B.,Competitiveness of American Manufacturing in World Market, New York: Hooper, 1965.
- Vollrath, T., "A theoretical evaluation of alternative trade intensity measures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s", Wellwirtschaftlilched Archiv, 130, 1991.
- Ferto, I. and L.J. Hubbar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Competitiveness in Hungarian Agri-Food Sectors", World Economy 26(2), 2003.
- <http://www.imf.org>
- <http://www.wto.org>
- <http://www.worldbank.org>
- <http://kosis.kr>
- <http://www.bok.or.kr>